

크리스찬의 자유 [2]

신학박사 조 덕운

성경말씀 [요한 8:31-32, 흥정역]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5. 절망에서 자유로

참된 크리스찬들이 향유하는 세번째 자유는 절망과 낙담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굴곡에 따라 낙담하고 절망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의 좁은 길을 걷다 보면 이 진리의 길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거나 인생의 여정이 너무 힘들어 낙담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불만을 품게 되고, 나중에 크게 후회하게 될 잘못된 결정을 하도록 유혹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부인 이사벨이 대언자 엘리야의 목숨을 취하겠다고 공공연히 협박을 하자 엘리야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자신의 사역 지역인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유대 광야로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세벨에 관하여 불평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취해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19 장 1-8 절]. 하나님께서는 한 천사를 보내어 엘리야를 먹이고 두번이나 손으로 만져 주셨습니다. 천사가 공급한 음식을 먹고 엘리야는 힘을 얻어 40 일을 여행하여 아라비아에 있는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엘리야는 다시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절망감과 두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는 깊은 절망과 번뇌 속에 있었습니다. 카멜 산 정상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였던 큰 승리를 거둔지 얼마 안되었는데 엘리야는 자신의 사역에 대한 비전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호렙 산은 하나님의 산으로서 엘리야는 이 산위에서 격려와 새로운 비전과 힘을 얻고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나머지 소명을 수행하도록 자신의 사역지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수천년 전에 대언자 엘리야를 격려하신 것처럼 오늘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힘 주시고 계속하도록 격려하십니다. 엘리야가 경험한 것처럼 이 세상의 핍박이나,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난관이 닥칠 때에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와 함께 신음합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하신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8:26-27]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살피보시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 하는지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할 때에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신원, 중보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우리가 너무 기력이 없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해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훌륭한 중보자,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죽임 당하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실 것을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령님을 일컬어 ‘위로자’ 또는 ‘돕는 자’ 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성령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 하나님께 되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대신으로 그리스도의 영, 즉 돕는 분을 크리스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한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의 가슴 속에 들어오시고 그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 영을 거부하고 내어 쫓지 않는한 성령님께서서는 그의 혼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7]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영은 절망에 빠져, 낙심하여 계속할 기력을 잃어버린 모든 크리스찬을 도와 주십니다. 하늘에서 오는 만나를 먹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계속하도록 도와 주십니다. 낙담하여 두려움에 떨던 엘리야가 호렙 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후에 자신의 사역지로 되돌아가서 사역을 계속한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호렙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힘과 새로운 비전을 받는 아름다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괴로울 때에 호렙산의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있게 달리고 높이 날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31]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 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창조물에게 여러 가지 물리적 제약들 아래에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중 한가지는 중력입니다. 중력은 우주 전체에 작용합니다. 물리학자 뉴턴은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은 그들의 질량에 곱에 비례하고 그들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진리를 발견하였습니다. 이 중력의 법칙은 이 지구상에서 뿐아니라 우주의 모든 천체 간에도 적용됩니다.

인간은 과학 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항공기와 로켓 등을 발명하여 중력의 힘을 극복하는 방법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항공기나 로켓 등도 연료가 소진되면 중력을 받아 추락하거나 착륙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대언자 이사야는 독수리가 중력을 거부하고 바람을 타고 높이 날 수 있는 점을 눈여겨 보았습니다. 이 구절에서 이사야께서 설파하는 것은 우주 만물에 작용하는 중력을 이기고 높이 날 수 있는 두가지 피조물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독수리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 기다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높은 산의 정상에 오를 때마다 독수리가 상승 기류를 타고 날개를 거의 움직이지 않고서도 높은 창공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즐겨 보곤 합니다. 독수리는 골짜기를 흐르는 바람을 타고 높은 산 위로 날아 오릅니다. 중력의 힘은 모든 물체를 밑으로 끌어 내리지만 독수리는 중력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바람의 상승력에 자신의 몸을 실어 위로, 위로 올라갑니다. 이와 같이 우리 크리스찬들도 성령님의 상승력에 자신을 내어 맡길 때에 자신의 영이 세상의 소음과 끌어내리는 중력을 이기고 높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앞에 조용히 기다리고 성령님의 완전한 통제하심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모든 크리스찬에게 이러한 특별한 능력과

특권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매일 독수리와 같이 성령님의 상승력에 자신을 내어 맡기고 높이 올라 비상하는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6. 두려움에 대한 자유

모든 참 크리스찬이 갖게 되는 네번째 자유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되는 두려움에 대한 자유입니다.

[로마서 8:38-39]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지 못하리라.

고아원에 수용되는 아이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부모들로부터 분리 당한 경험 때문에 평생 불안정감을 지니고 산다고 합니다. 부모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기관에 아이들을 위탁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아이가 아무리 기다려도 부모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부모들로부터 떨어지는 경험을 한 아이들은 안정적이고 사랑이 찬 가정에서 살고 싶은 간절한 열망을 갖게 됩니다. 많은 불행한 아이들이 임시 위탁 시설에 보내어져 돌봄을 받지만 이런 곳들이 사랑에 찬,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아이들은 안정되고 사랑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곳을 지속적으로 갈구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을 우리에게 펼치고 부르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을 잡으면 그의 사랑스런 가족의 따스함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안정을 찾게 되고, 용서함을 받게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써 온 우주의 창조자 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아원에 수용된 아이들과 달리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분리됨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안에 우리를 지켜주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안정을 누리는 것인데, 사도 바울께서는 다음 다섯 가지 이유로써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고 설파합니다:

첫째 이유: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십니다 [로마서 8:31]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될 것을 두려워 하지 않고 그러한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첫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된 처지에서 풀어서 인도하도록 모세를 선택하신 후에 이집트 왕 파라오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을 막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편에 계셨고 오랫동안 이들을 노예로 속박했던 굴레로부터 이들을 해방시키는 역사를 스스로의 계획과 뜻에 따라 진행 하셨습니다.

[로마서 8:31]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종속 상태에서 자유롭게 하려 일하시면 누가 감히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 묶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을 우리로부터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고 그분의 구원의 능력을 신뢰하는 한 어느 무엇도,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절대로 떼어 놓지 못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둘째 이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8:32]

우리가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두번째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사망 너머에 생명의 소망을 갖지 못했을 때에,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오직 죽을 때에 사라질 허망한 것만을 위해 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매우 소중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를 위해 우리를 먹이시고, 보전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얼마나 훌륭한 것들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생이 끝날 때에 우리 영의 생명이 주 예수의 온전한 충만함에 이르도록 하시겠습니까?

[로마서 8:32]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서는 여러분과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출하시고 자신의 복된 가족으로 데려오시기 위하여 매우 큰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의 자녀가 된 우리를 어떻게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된 후에 여러번 죄를 지었고 넘어졌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으로부터 쫓겨날 것이라고 두려워 해야 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 지불하신 가격이 너무나 큰 것이므로 이제는 도저히 여러분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절대로 놓치지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절벽에 간신히 매달려 곧 절벽 밑으로 떨어질 것 같아도 여러분을 붙잡으신 그분의 손이 매우 크고 강력하기 때문에 절대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신의 품에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안에 머물기 바랍니다.

셋째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8:33]

우리 크리스찬이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세번째 근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으므로 거룩하신 하나님 면전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댓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여 우리의 죄 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 주셨으므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죄”라고 판결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칭의 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므로 누구도, 심지어 사탄이라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기소할 수 없다고 33 절과 같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33]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만일 사탄이 여러분의 귀에 대고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된 이후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될 자격이 없고 약하고 실패만 하는 하나님께 실망만 안겨주는 부담스런 존재라고 속삭인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자신의 자녀로 만들었으므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제 여러분을 자녀가 아니라고 결코 쫓아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부모가 자신의 아들이나 딸이 실망 뿐인 자식이라고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니 부모 자식 관계를 의절하자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던 간에, 어디에서 살던 간에, 어떻게 살아왔던 간에 여러분은 부모님의 자식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절대로 택한 자녀들을 의절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다고 사탄이 여러분에게 속삭일 때에,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말 할때, 여러분이 더 이상 구원을 받을만한 자격이 없다고 비난하고 정죄할 때에, 여러분이 죽은 후에 하늘 나라에 가면 정문에서 거부당할 것이라고 단언할 때에, 그런 때에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대신 충분한 값을 이미 지불하셨음을,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무죄”라고 심판하셨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의 이름을 하늘의 등록부에 등록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등록부에 찍은 도장을 여러분이 지울수 없으니 이 도장이야말로 사탄이 주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되는 확증인 것입니다.

넷째 이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8:34]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의 확신을 주는 네번째 근거는 사도 바울이 8 장 34 절에 설파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34]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어떤 사람이 어떤 범죄로 기소 당하여 재판정에 피고로 설 때에 변호사가 이 사람을 변호하게 되는데, 관련 증거물과 증언 등을 제시하고, 피고가 가능하면 가벼운 형벌을 받도록 논리적으로 변호를 하게 됩니다. 보통은 피고인이 자신을 어떻게 변호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대로 된 변호사라면 피고인의 정황을 잘 이해하고 판사의 자비로운 심판을 얻기 위해 어떠한 논리와 주장을 펴서 변호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변호사가 둘이 있는데 두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이 두분의 변호사는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신데 우리가 잘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를 우리를 대신하여 변호와 호소를 담당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분은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잘 이겨내도록 도와 주십니다. 먼저 8 장 26-27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중보하십니다.

[로마서 8:26-27]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유사하게 하나님의 아들께서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8 장 34 절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죽으신 구세주께서 이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들을 잘 이해하십니다. 그분의 부활한 몸에는 참혹한 십자가 처형의 상처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하나님 아들에게서는 역경과 시험의 경험을 겪는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잘 알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14-16]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재판 받고 체벌을 받는 어려운 때에 세번이나 주님을 거부하기 전에 주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써 그의 믿음이 회복되도록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31-32]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너는 돌이킨 뒤에 네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하시니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어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옆에 좌정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계시니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크리스찬이 실패하고 넘어질 때에 우리 주님은 그를 이해하는 가슴을 지니셨습니다. 여러분이 크게 실패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없어”라고 자책할 때에, 절망의 나락에 빠져서 더 이상 예수님의 길에 계속할 수 없다고 용기를 다 잃어 버렸을 때에,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신원, 중보하시는 대제사장께서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못박혀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임을 기억합시다. 갈릴리 해변과 유대의 산길을 제자들과 여행하면서 복음의 사역을 열심히 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는 유능한 변호사이심을 기억합시다. 바로 그 이유로서 우리는 아무 것도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자유를 얻었으며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고 계시므로 우리는 두려움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이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8: 35-39]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될 것을 두려워함에서 자유로운 다섯번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35-39]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별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것은 기록된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지 못하리라.

8 장 37 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택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이제 거룩하게 하고 계시는 그분의 사랑에서 이 땅이나 하늘에 있는 어느 것도 우리를 떼어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므로 자주 너머지고 실패합니다. 그래도 그러한 실패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분리시키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불완전성 때문에 우리를 의절하시면 그것이 하나님 자신의 실패를 의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실패하시지 않으며, 그의 말과 계획은 영원토록 참되게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완전한 인간 구원 계획에 따라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데려오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의 댕가를 지불하셨다면,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을 저버리지 않는 한 우리가 그 가족에서 분리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설사 우리가 하나님을 자의적으로 떠났다 할지라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사랑과 자비로 우리의 귀환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중에 경험하게 되는 고난이나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배제하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매우 어려운 경험이 올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런 난관은 우리 자신의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나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들을 통하여 궁극적인, 영원의 관점에서 선이 이루어지도록 신비로운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최선이 이루어지도록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복자들인 원수들보다 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을 통하여 매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의 경험이 부족하다면 매일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얼마나 보내는지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낼 때에 영적인 힘과 격려를 받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우리가 패배하는 자들이 아니고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안정된 영적 생활은 모든 참된 크리스찬이 당연히 즐길 수 있는 혜택이자 특권이라고 로마서 8 장에서 사도바울이 선언했습니다.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이 진리를 믿고 그 안에 기쁨으로 승리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